

좋은 미술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 미국의 미술인 양성교육

설 원 기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문화환경의 다양화

시초에 한국대학교육의 기본 틀은 미국교육을 근본으로 도입해 왔기 때문에 두 나라의 교육구조는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21세기 선진문화국으로 도전하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 나라의 미술교육 현실을 세부적으로 비교한다면 문화환경, 입시제도, 그리고 교과과정 운영관점에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문화환경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말하자면, 미국학생들은 세계적인 예술문화를 체험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시카고아트인스티튜트 대학(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은 세계적인 박물관 내에 위치해 있다. 박물관 소장품들은 학업을 위해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고 세계적인 기획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작품관람뿐만 아니라 작가들과의 만남과 대화가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한국도 광주비엔날레나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행사로 세계적인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있지만 비교적 단편적이다. 정부와 주요 문화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적 차원으로서 좀더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연관된 지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미대입시 문제는 한국 입시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다양한 학생 선별을 제도화하고 있는 미국대학 입시는 획일적인 한국대학입시와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면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능성적이 낮아도 개인적인 개성을 반영하여 전체 신입생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 미대입시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포트폴리오(portfolio) 심사는 확인할 수 없다는 불신의 이유로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두 입시생에 대한 오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양성이란 더 큰 '득(得)'을 놓칠 수 있다.

다양화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상황은 대학간의 특성

화이다. 교육목표와 대학교수들의 예술관이 교과운영에 반영되고 교수진의 작품성도 교육관점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일 미술대학(Yale School of Art)은 개념적 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비해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대학은 전통적인 관점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교수진도 전통적 회화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 때문이라도 중·고등학교 미술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다. 미술전공이 진정한 진로선택이기 전에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미국 미대생들은 전공 선택에 대한 적성문제를 대학입학 전부터 고려해 왔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업에 임하는 태도와 준비가 상대적으로 완숙한 편이다. 초·중·고 미술교육부터 폭넓은 미술의 이해와 창의성 교육위주로 개선되어야 한다.

교과운영은 구조적으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학(Carnegie Mellon University)은 교내 창작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년 단위로 교수진을 포함한 전문인들을 초청해 연구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관련 주제로 연구계획안을 제출해 연구원으로 선발되는데 교수일 경우 새로운 과목개설과 세부 강의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인력도 제도적으로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 미국 프랫 대학(Pratt Institute)에서는 교수등급이 7단계로 나뉘어 있다. 시간강사에서부터 시간제 겸임, 겸임, 시간제 전임, 정교수가 아니어도 4개 등급 정도는 교수에 해당하는 대우와 함께 경제적으로 생활이 보장되는 편이다.

교육개발목표로 구성된 학회나 세미나를 통해 교육개선에 대한 대화가 활성화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 대학 미술협회(College Art Association)와 이에 속해 있

는 부속협회들이다. 부속협회 중 대학 파운데이션 협회(College Foundation Art Association)는 2년마다 학회를 개최하면서 미술 기초교육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약 5,000명의 교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등교육학회(Higher Education Society)는 고등교육 개혁과 미래교육의 지향성을 연구하고 논문집을 발행한다. 몇 년 전 한국에서도 대학미술협회가 설립되었다. 교육개선을 목표로 한 학회나 세미나에 교육인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좋은 미술교육이란

이상적인 미술교육은 없다. 교육만으로 훌륭한 예술가를 육성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작가이며 교육인이기도 한 막스 백크만(Max Beckmann)이 “미술의 길은 가르칠 수 있지만, 미술 그 자체는 가르칠 수 없다(You can not teach art, but You can teach the way of art)”라고 말했듯이 좋은 미술교육은 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현재 정보화와 세계화 물결에 미국이나 한국미술의 현실은 그다지 다를 바 없다. 문제는 급속히 변하는 현실 속에서 그 상황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있다. 얼마 전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대학 교수에게 요즘 교육자로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늘날 미술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관심과 시도를 추구한다. 요즘 학생들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특정한 전공 분야에만 접근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많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다양성과 유연성, 지속적인 교육방법 연구와 개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